

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설교

여러분, 요즘 어떤 걱정이 제일 많나요? 시험, 성적, 진로, 친구 관계, 미래... 청소년 시기는 정말 생각도 많고 마음도 바빠요. 가끔은 ‘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?’ 하는 불안이 가슴을 꼭 채울 때도 있죠.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충분히 있어요.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“염려하지 말라”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그렇다고 “걱정하는 네가 잘못이다”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,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.

예수님은 먼저 까마귀를 보여 주세요. 까마귀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,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으신대요. 또 백합화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만들지 않지만,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하십니다. 즉, ‘노력하지 말라’가 아니라 ‘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’는 뜻이에요. **자연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,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?** 예수님은 이어서 “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”고 하십니다. 즉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선택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.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,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,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.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. “두려워하지 말라. 작은 무리여,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.” 하나님은 여러분을 걱정보다 더 크게, 실패보다 더 깊게, 미래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“하나님, 저는 걱정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”라고 고백해 볼까요?

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누가복음 12:22~34절 다 같 이

설 교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- 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- 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찬 양



▶ 찬양 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
오늘 말씀을 통해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
다. 까마귀와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
사실을 믿습니다.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
저 구하며 살게 해 주세요.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
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.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예수님이 까마귀와 들꽃을 예로 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2. 내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고,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
먼저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